

레벨업

한숨이 절로 나왔다. 건물 앞에 도착한 군인들이 트럭에서 우르르 내렸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대열을 맞춘 군인들이 총부리로 건물을 겨눴다. 이대로 뛰어나가면 별집이 되겠지. 정면 돌파는 어려울 것 같았다.

- 도와줘 어디야?

갑자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헬기까지? 소리가 점점 커졌다.

- 이러기야! 왜 답을 안 해?

탕!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번쩍했다. 모니터 한쪽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마우스로 화면을 회전시켰다. 다행히 내 옆에 있던 캐릭터가 쓰러졌다. 나는 후다닥 건물 안 쪽으로 고이 키운 내 캐릭터의 몸을 숨겼다.

- 두드드드.

군인들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총을 마구 갈겨댔다. 총알이 비처럼 건물 안으로 쏟아졌다. 나는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다. 민규는 뭘 하는지 내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접속해 있다고 떠 있는데 말이다.

- 슈우웅, 평!

순식간에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게임 오버. 내 캐릭터가 죽고 말았다. 마우스로 책상을 탁 쳤다.

“아직도 집에 있으면 어떡해!”

엄마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다.

“어, 그게…….”

“레벨 평가 있는 날이잖아. 학원에 일찍 가서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했지! S반에서 미끄러지지만 해 봐…….”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엄마 말을 잘랐다.

“갑자기 할머니가 올라오신대. 그래서 그냥 온 거야.”

“할머니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다.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올라오신다고 해서 모시러 가야해. 방은 또 이게 뭐야! 철 좀 들어, 아들!”

엄마가 눈을 흘기며 방문을 닫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잠바를 집어 들었다. 컴퓨터를 끄고 책상 위에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던 책들을 책장 사이에 마구 꽂았다. 그리고 다시 책가방을 땀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종합 상가 단지로 이어지는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다다랐을 때, 민규가 보였다.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 민규의 뒤통수를 날렸다.

“아야!”

민규가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뒤를 돌아봤다.

“배신자!”

내 말에 민규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지호야, 쏘리~. 그니까 같이 PC방에 가지 그랬어. 범생이처럼 집으로 가더니…….”

“바로 접속했거든!”

범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팍 상해 말을 잘랐다.

“오~ 범생이가 쪼잔하기까지 한 거야.”

민규는 뭐가 웃긴지 혼자 킬킬거리며 말을 이었다.

“편의점 가서 라면 먹자. 재미난 것 보여 줄게. 벌써 학원 가는 거 아니지?”

그 순간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민규가 내 어깨에 손을 걸고 횡단보도로 내려섰다. 나는 쪼잔한

범생이가 아니니까. 보란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을 향해 걸었다.

라면이 익을 동안 민규는 PC방에서 터득한 게임의 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하면 이랬다. 빨리 레벨업을 하고 싶으면 첫째,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고. 둘째, 캐릭터 별 기술을 익혀야 하고. 셋째, 공격 무기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학교와 학원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을 익히기 힘들다. 그렇다고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살 형편도 안 된다.

“야, 쫄지 마!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민규가 나를 보며 씩 웃었다.

“뭔데?”

“혈맹!”

민규가 자기 스마트 폰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잘나가는 게임 유저들이 바글거려. 너도 댓글놀이 해. 일간 유머 베스트 게시판에 재미난 거 많아. 친해져야 혈맹을 맺지.”

스마트폰 화면에 기다랗게 생긴 상자가 줄을 맞춰 가득 놓여 있었다. 상자 포장지는 태극기였다. 옆에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해보니 어른이 누워도 될 만한 크기였다. 게시물 제목에 ‘택배 도착했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컱. 커컱.”

민규가 내 등을 두드렸다. 매운 라면 국물이 목구멍에 달라붙었는지 계속 기침이 났다.

- ㅋㅋㅋ 빨리 열어보송

“이 댓글 내가 단 거야. 게임의 신들과 친해지면 만렙 찍고 대장되는 건 일도 아니야.”

민규가 족집게 과외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속삭였다.

민규가 쓴 댓글 위아래로 아주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었다. 하나둘 읽다보니 기침이 멈추고 웃음이 났다. 민규가 S반으로 레벨업 되기 위해 내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것처럼 나도 레벨업을 위해 게임의 신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았다.

- 흥어 냄새 썩 당게 ㅎㅎㅎ

맨 끝에 자리한 댓글이었다. 순간 네 살 때 처음 먹어 본 흥어 맛이 떠올랐다. 코가 땡 뚫리면서 눈물이 찔끔 났었다.

- 으악~ 구려구려. 내 코 썩네!

나도 그 아래 댓글을 달았다.

“야! 내 아이디어로 쓰면 어떡해!”

민규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순식간에 내 댓글 아래로 많은 댓글이 이어졌다. 민규가 스마트 폰 화면을 아래로 쭉 당겨가며 반응을 살폈다. 내 댓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갑자기 모르는 아이디어의 주인들이 아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음, ‘시파란떡’님이야. 게임의 신이라고.”

민규가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내가 쓴 댓글인데…….’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규를 바라봤다. 그러거나 말거나 민규는 자기가 쓴 것처럼 킁킁거리며 댓글을 즐겼다.

수학 레벨 평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처음으로 민규가 부러웠다. 평소라면 민규가 내 옆에 붙어서 답 좀 보여 달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내가 민규 옆에 붙어서 스마트 폰 좀 보여 달라고 졸랐다. 게임의 신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에는 진짜 웃기는 동영상과 재미난 사진들이 많았다. 특히 흑백 사진들이 그랬다. 총을 든 군인들이 폼 나게 줄을 맞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적군보다 유리하게 전투 공간을 만드는 건 게임의 기본이다. 총을 쏘는 군인들이 보였다. 다음에 우르르 도망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일그러진 얼굴로 몽둥이를 피하는 사람도 보였다. 하지만 소용없다. 더 많은 군인들이 혈맹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제압하는 건 시간문제다. 스마트 폰 화면을 아래로 당겼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불타는 거리

가 보였다. 전투가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았다. 순간 토가 쏠릴 만큼 괴기한 사진이 나왔다. 하지만 그 아래 달린 댓글을 보니 피식 웃음이 났다.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고 대장을 하려면 이 보다 많은 몹을 잡아야 한다. 그뿐인가, 내가 S반으로 레벨업 되기 위해 매일 풀어야 했던 수학 문제는 이 보다 더 많았다. 괴물 같은 숫자들이 하나둘 다가오면 수학 공식으로 처단하고 또 처단했다. 빵야, 빵야, 빵야. 문제집을 한 장 두 장 넘기고 동그라미가 가득 채워질수록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레벨업이 되었다는 증거니까. 게임 실력도 레벨업 하고 싶다. 친구들이 나를 게임의 신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레벨업을 위해 함께 싸워 줄 동지가 필요하다. 시파란떡님이 내 존재를 알아야 하는데……, 자꾸만 손가락이 근질거려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꾸역꾸역 수업을 마치고 집을 향해 뛰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왔는가.”

할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반겼다.

“애미야, 거 떡 좀 가져와 봐라.”

식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저걸 어떻게 다 먹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책가방을 벗고 할머니 옆에 앉았다.

“나눠 먹을 것이다. 팔다리에 힘이 없는 게 두텁떡을 또 해줄 수 있을랑가 모르겠다.”

갑자기 할머니 눈가가 축축해졌다.

엄마가 상자를 열고 아무 말 없이 떡을 꺼내 쟁반 위에 담았다. 떡으로 탑을 쌓는 것도 아닌데 아주 많이 떡을 꺼냈다. 할머니는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으로 엄마를 계속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빨리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싶었다.

“엄마, 레벨 평가 잘 봤냐고 안 물어봐요?”

내 앞에 놓인 떡을 집어 들고 물었다.

“애, 누가 들으면 공부하라고 잡는 줄 알겠다. 시험 봤으니까 오늘은 쉬어. 할머니도 오셨는데…….”

엄마가 두리번거리더니 리모컨을 찾아 TV를 켰다.

“우리 장손 시험 잘 봤는가?”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떡을 꿀꺽 삼켰다. 할머니가 안 오셨다면 시험 본 기념으로 내 방에서 두 시간은 자유롭게 게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다.

“쫄쫄쫄, 불쌍한 어린 아그들 잡아먹고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할머니가 내 등을 쓸며 물 컵을 내밀었다. TV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켓을 든 어른들이 보였다.

“애미야, 공부가 뭐가 중하냐.”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볼을 쓸었다.

“어머니, 왜 무진장 힘센 며느리 나오는 드라마요.”

“오메, 벌써 시간이 그러냐.”

엄마가 채널을 돌리며 날 쬐려봤다. 할머니가 드라마를 보기 위해 소파에 모로 누웠다. 난 할 수 없이 소파 끝으로 가 털썩 앉았다. 제발, 드라마가 다 끝나기 전에 할머니가 코를 골길. 그런데 엉덩이에 뭔가 툭 걸렸다.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보니 누나 스마트 폰이었다.

“누나는?”

“학원에 있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같니?”

엄마는 항상 저런다. 누나는 중학생이랑 다 되고, 난 초등학생이라 다 안 된다고 했다. 우리 반에서 스마트 폰이 없는 사람은 나뿐일 거다.

곧 엄마는 할머니와 드라마를 보며 주머니 받거나 남자 주인공 홍보기에 바빴다. 그러는 사이 나는 누나 스마트 폰을 들고 잠금을 풀기 위해 다양한 패턴을 그리고 또 그렸다.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남자 뺨을 때리는 순간, 엄마랑 할머니가 시원하다고 소리치는 순간, 누나 스마트 폰 잠금이 풀렸다. 앗싸! 나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조용히 게임의 신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다.

게시판 첫 장이 달라졌다. 새로운 글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듯 많은 게임

유저들이 글을 올렸다. 시파란떡님도 접속해 있을까? 손가락을 아주 빠르게 눌러 사이트에 가입하고 맨 위에 올라온 글을 터치했다. 또 흑백 사진이다. 대장님 캐릭터가 대머리라니, ㅋㅋ 웃음이 났다. 흑백사진을 쓰윽 훑어보며 화면을 내렸다.

- 찌릉찌릉, 진압군 퍼포먼스

시파란떡님이 플래시와 함께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았다. 몽둥이를 내리치는 군인과 몽둥이를 피하는 머리가 긴 아저씨가 빠르게 움직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민규 아이이다. ‘ㅋㅋㅋ’를 아주 길게 달았다.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모르는 수학 문제는 영원히 모르는 것이다. 누군가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지금까지 나 혼자 뭐 한 거지?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면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법을 이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정도 댓글로는 시파란떡님의 관심을 끌 수 없지.

- 해헛, 대장 캐릭 대박! 찌릉찌릉 폭도의 반란은 무의미

나는 댓글을 달고 시파란떡님이 올린 플래시를 다운 받아 내 댓글에 똑같이 첨부했다. 게임 유저들이 좋아했다. 손가락 끝에 전기가 짝 올랐다. 내 댓글에도 누군가 ‘ㅋㅋㅋ’를 아주 길게 달아줬다. 나도 그 댓글 아래 또 댓글을 달았다. 민규랑 수다를 떠는 것 보다 훨씬 재미났다. 내 댓글을 보고 범생이라고 놀리는 유저는 없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화면을 아래로 내리며 댓글을 즐겼다.

- 쓰담쓰담, 내가 캐리 해 줄게.

시파란떡님이었다. 내 아이디는 처음 봤을 텐데, 혈맹을 맺어 주겠다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가락이 춤을 추며 스마트 폰 자판을 두드렸다. 내가 생각해도 재미난 댓글이 머릿속에서 마구 터져 나왔다.

“야, 너 뭐야!”

갑자기 내 손에서 스마트 폰이 쑥 빠져나갔다. 누나가 날 썰어보고 있었다.

“엄마! 지호가 내 스마트 폰 만졌어요.”

순간 등쪽에 전기가 올랐다.

“으그, 누나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랬지.”

엄마가 누나를 달래며 내게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 드라마가 끝났는지 TV에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새로 나온 스마트 폰이었다.

“누나만 사주고 난 왜 안 사줘!”

갑자기 숨이 차올라 씩씩거렸다.

“할머니 앞에서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

아빠였다. 현관 앞에 서서 무섭게 날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다. 평소라면 아빠가 벌써 집에 올 턱이 없다. 왈각 눈물이 쏟아졌다.

“가시나 승질보소. 동생이 핸드폰 좀 만지게 그러코롬 화낼 일이단가 모르겠다.”

할머니가 거친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 진지는 드셨어요?”

아빠가 멧쩍은 얼굴로 거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됐다. 지호랑 들어가서 잘란다.”

나는 아기처럼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내 방문이 닫힐 때까지 핸드폰 광고의 멜로디가 내 귀를 잡아 당겼다.

다음날, 늦잠 자는 나를 아빠가 깨웠다.

“할머니 모시고 시내에 다녀와야겠다.”

“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젯밤 할머니 스마트폰을 빌려 민규에게 문자를 남겼다. 토요일이니까 PC방에서 만나기로.

“엄마가 가면 안 돼요? 학원 보충 수업 있어요.”

나도 놀랄 만큼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안 돼.”

아빠가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누나도 있잖아요!”

“아들!”

아빠 눈썹이 꿈틀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입술을 잘근 씹었다.

“가는 길에 스마트 폰도 알아보던 가. 툭툭대지 말고 잘 다녀와. 알았지?”

입 꼬리가 저절로 움찔거렸다. 이미 시파란떡님과 혈맹을 맺고 레벨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별을 단 장군처럼 웃음을 꼭 참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다리 안 아파요?”

한 손으로 떡 상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려니 팔이 아팠다. 할머니는 멋진 건물들을 그냥 지나쳐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할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빈대떡을 굽고 있는 아줌마에게 말을 걸었다.

“아줌씨, 말 좀 물어봅시다. 여기 빚고을 속옷 집이 어디요?”

“아, 저기, 저 쪽이요. 안으로 쪽 더 들어가세요. 일부러 찾아오셨나 봐요. 동향 사람 가게라고.”

“애기 옷을 하나 사야 하는디……, 알아야 사이즈를 잘 골라 줄 것 아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소. 이거 하나 싸 주소.”

애기 옷? 누구 선물인지 궁금했지만, 할머니 스마트폰으로 새 게시물에 댓글을 다느라 물어보지 못했다.

“영선아!”

“이모! 언제 올라 오셨어요.”

“장사는 잘 되냐?”

할머니가 애기 옷을 살 생각은 안하고 가게 안에 있는 작은 마루에 올라앉았다. 아줌마는 우리 할머니와 아주 잘 아는 사이 같았다. 아줌마가 우리 할머니를 자꾸 이모라고 불렀다. 친척도 아니면서. 나는 할 수 없이 가게 구석이 있던 작은 의자에 앉았다. 맞은편 벽 위쪽 선반에 작은 TV가 혼자 떠돌고 있었다.

“네가 우리 경덕이랑 같은 국민학교 같은 반이었제.”

“이모, 제가 두 살 위예요. 경덕이가 누나라고 안 부르고 맛먹으려고 했잖아요.”

맙소사! 아빠도 그랬으면서……. 만날 누나한테 대들었다고 나만 혼내고. 억울한 마음에 고개를 들었는데, TV 자막으로 흘러가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 문힐 뻔한 5.18 진실, 계엄군 헬기사격 37년 만에 사실로 밝혀져

TV 화면에 건물 안 총탄 흔적이 클로즈업 됐다. 뉴스에 나온 화면이 게임과 똑같았다. 군인들이 헬기까지 동원해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발포 명령자로 지목된 사람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다. 대장 캐릭터? 대머리? 대통령? 나는 얼른 주머니에서 할머니 스마트폰을 꺼냈다. 일간 유머 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찬찬히 들여다봤다. 택배 상자로 표현된 사진 속 사람들이 상자를 안고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나보다 어려보이는 아이도 있었다.

“쫄쫄쫄, 썩을 놈.”

할머니가 TV화면을 보고 혀를 찼다.

“아니,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 한지가 언젠데……, 37년 만에 인정하는 게 말이 돼요?”

“말해 뭣하냐. 세월이 아깝제. 경숙이 입 힐 도통한 내복 좀 골라보라고. 개나리나 진달래 색으로.”

“늦봄에 무슨. 이모, 5월에 입히면 너무 더워요.”

“내 죽기 전에 안 사주면 누가 기억했다 사주나. 영영 모르제.”

“그럼, 시원한 걸로 사줘요. 요즘 시원한 내복도 나와요.”

“아니여. 고계 3월에 태어났다. 금방 크니 게, 도통한 내복을 한 벌 안 사줬다. 아까워서 그랬제. 그날 그렇게 군인들 난리 통에 갈 줄 알았나. 돌아오는 겨울에 사 줄라했는데……. 네가 우리 경숙이 이쁘다고 자주 안아주지 않았나. 도통한 것으로 골라줘.”

모르는 이모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도 먼 곳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TV 화면에 인터뷰 중이 아저씨가 군인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시민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머릿속이 어질어질했다. 웬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우리의 기억을 멋대로 레벨업 시킨 것 같았다. 손가락 끝이 따갑고 목덜미

가 미치도록 가려왔다.

“화……, 화장실 좀 다녀 올 게요.”

나는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화장실 맨 끝 칸으로 들어가 내가 쓴 댓글을 찾아 마구 지웠다. 그런데 맨 처음 민규 아이디로 입력한 댓글이라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다시 마주한 사진들 속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다. 그 날 고모가 아니고 아빠가 군인들의 총을 맞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이런 장난을 한 거야!

- 뉴스 봤음? 폭도 아님, 그냥 시민임.

나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고 댓글을 달았다. 더 이상 잘못된 공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 듯 레벨업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혈맹을 약속했던 시파란떡님이 내 댓글 아래 바로 욕 댓글을 달았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다. 다른 유저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내 댓글에 공감을 하는 유저도 있었지만 욕이 더 많았다. 나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려 변기에 털썩 주저앉았다. 맨 끝에 어떤 유저가 링크를 달았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블로그가 나왔다. 뉴스에서 봤던 것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뉴스와 결론이 달랐다. 우리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갑자기 화장실 안 킁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 네 아이디로 내가 쓴 댓글 삭제해 줘.

나는 민규에게 문자를 남겼다.

- 왜? PC방으로 빨리 와. 레벨업하고 싶지 않아?

민규의 답장을 읽는데,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다.

- 그 사이트 이상한 곳이야.

손가락을 빠르게 눌러 답 문자를 보내고 변기 물을 내렸다. 크르렁 시원한 소리를 내며 변기 물이 쭉 빨려들어갔다. 다시 차올랐다.

화장실을 나와 할머니를 향해 마구 달렸다. 할머니는 이미 고모에게 줄 내복을 다 골랐을 것이다. 이제 내가 기억하면 된다. 할머니의 늦봄을.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숨이 차올랐다. 스마트폰은 다음에 골라야겠다. 바로 민규에게 가야지. 쫄랩이라도 괜찮다. 진실은 레벨업 할 수 없으니까.